

군 공항 이전 국방부가 나서고 시·도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 뉴스 초점 /

광주·전남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광주군 공항 이전'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상생발전 과제'에 이름을 올렸지만 여태껏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역대 보조금을 지원하며 주민을 동원하는 등 다소 과열된 양상도 보이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국방부의 보다 명확한 자세와 대응, 단체장 간 보다 적극적인 소통, 이전 후보지 주민 대상 공정한 여론 형성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돈 쥐어주며 "이전" vs "저지"=무안군은 최근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 1억원을 지급했다.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올해 초 9개 읍·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 '광주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안군이 사실상 간접적으로 '군 공항 이전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것을 의미한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1개 사회단체에만 보조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무안군은 앞서 기존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를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로 바꾸는 등 이전을 막기 위한 강경

무안군, 저지활동에 1억 지원
광주·전남 상생 과제 '표류'
단체장들 적극적 소통으로
공정한 주민 여론 형성 필요

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무안군의 이 같은 행태는 ▲대정부 촉구 활동 및 이전 분위기 조성(4800만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도민 홍보 활동(1200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한 광주시의 조치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생' 협력을 위한 대화의 문 열어야=무안지역 거리 곳곳에는 군 공항 이전 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일부에서는 광주의 '일방통행식' 이전 추진 운동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강하다.

광주공항 기능 이전을 전제로 서남권 거점 공항인 무안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된 만큼 광주·무안공항 통합과 군 공항 이전은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 무안군의 입장이다. '광주공항 이전을 양보했으나 군 공항 이전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접근 방식에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김성일(해남 1·민주) 전남도의회 의원은 이날 열린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을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민간공항 이전을 양보했으나 군 공항 이전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안군 안팎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지인 망운면의 경우 무안지역 한 가운데에 위치한데다, 홀통, 툇머리, 조근나무, 황토갯벌랜드 등 지역 관광지가 밀집해있고 노을길조성사업 등 관광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가 이전지 주변지역에 지원하겠다는 4500억원도 소용 완충지역 매입, 피해방지시설 조성 등을 위해 당연히 지원되는 금액이어서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광주시보다 국방부가 직접 나서 주민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단체장 간 소통을 통해 정부에 한 목소리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인 만큼 이전을 시켜야 하는 광주시나 이전 예비 후보지인 지자체가 직접 나설 경우 논란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국토방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광주·전남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차원에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남 경비단 발대 18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19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전남 경비단 발대식'에서 경찰공무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찰특공대와 경찰전담부대, 교통전담부대 등으로 구성된 전남 경비단은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와 여수에서 열리는 수영대회의 안전을 책임진다. >관련기사 8면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최고 인기 종목은 '하이다이빙'

조직위, 입장권 판매율 분석

경영 등 모두 6개 종목이 치러지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하이다이빙이 최고 인기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8면>

18일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수영대회 6개 종목 입장권 중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는 종목은 하이다이빙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으로 종목별 입장권 판매율을 분석한 결과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수구, 오픈 워터 수영, 하이다이빙 등 6개 종목 가운데 하이다이빙이 전체

입장권(6500매) 중 96%(6200매)가 판매됐다.

하이다이빙은 조선대 축구장에 설치된 27m 높이의 다이빙대와 임시수조에서 진행된다. 하이다이빙은 아파트 10층 높이가 넘는 27m(남자)와 20m(여자)의 아찔한 높이에서 지름 15m, 깊이 6m 수조로 뛰어내려 수영대회 종목 중 가장 역동적인 모습이 연출된다. 특히 다이빙의 공중 예술연기와 함께 광주시 전경과 무등산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TV영상을 통해 세계로 전파될 예정이다.

이러 '물속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바다 위에서 5km와 10km의 장거리 경기를 펼치

는 오픈 워터 수영이 7600매 중 3300매가 팔려 44%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 인기가 많은 종목은 '물속의 발레'를 볼 수 있는 아티스틱 수영으로 6만7000매 중 2만2000매(판매율 32%)가 판매됐고, 세계 최고의 스피드 건을 뽐내는 경영 경기가 10만1000매 중 3만2000매(판매율 31%)가 팔렸다.

한편, 이날 현재 광주세계수영대회 전체 입장권 판매율은 46.4%로, 17만1000매가 팔렸다. 금액은 43억원으로, 판매 목표액(75억원) 대비 57.3%를 기록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름철 전기료 누진구간 확대 ... 가구당 월 1만원 할인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으로 채택된 방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채택된 방안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북·중→미·중→한·중→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해법' 숨가쁜 외교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20~21일 방북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해법을 놓고 이달 하순 한국·미국·북한·중국 정상 간의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이어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어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뒤 29일께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열흘 사이에 한반도 문제의 주요 플레이어인 남북한과 중국, 미국 등이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북중정상회담은 단연 주목된다. 시 주석이 비핵화 협상에 있

어 북한의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의 수위를 조정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고비 때마다 시 주석과 만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북한의 협상 복귀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기대도 없지 않다.

G20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서울에서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비롯한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을 전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세계문화유산 대흥사 - 패불도 ▶18면
꽃범호 KIA 이범호 은퇴 ▶20면

제 64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심사평 ▶15·16·17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PURE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키온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